

익산 옛 보석산단, '재탄생'

보석특성화사업 일환... 28~30일 보문찾기 깜짝축제 개최

국내 귀금속 보석산업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익산 옛 보석산단이 축제의 장으로 재탄생한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보석산업을 지역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국내 대표 보석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보석문화도시의 의미와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영등동 귀금속 보석산업단지에서 '제1회 보문찾기 깜짝축제'를 개최한다.

'익산은 보석이다. 보석은 문화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익산만의 특색있는 체험과 공연 전시 등

으로 새로운 볼거리가 다채롭게 마련됐다.

총 다이아몬드 2캐럿이 걸린 '보문찾기'는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귀금속 단지에 숨겨진 쪽지를 찾아 코인으로 교환하거나 별도의 게임으로 코인을 추가 획득하는 내용이다. 코인의 일련번호를 통해 프로그램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한다.

이어 '보석RPG추리게임'은 귀금속단지 지를 누비며 미션을 수행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선정하며 총 12종의 골드배가 상품으로 지급된다.

'누구나 즐기고, 누리는 보석공예' 체험 프로그램은 나만의 원석 팔찌,

크리스탈 반지 만들기, 다이아 은반지 만들기 등 보석공예와 원광보건대학교 교에서 준비한 뷰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도 익산의 보석을 빛낸 명인과 명작들의 작품 전시, 한국 보석산업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전, 익산의 보석인 아가들의 탄생사연 소개, '보석과 제2의 만남'을 주제로 하는 각종 공연, 세상에 없는 폭탄세일 핫딜샵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축제가 펼쳐지는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귀금속 보석산업의 뿌리이자 반세기 역사를 간직한 곳인 만큼 익산의 보석 명인과 업체 대표, 종사자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했다.

“김장은 역시 익산이지!”

마을전자상거래 11월 7일부터 절임배추 예약판매 시작

익산시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했다.

시는 다음달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익산몰(<http://isnsmall.com/>)에서 마을전자상거래 김장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다음달 7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배송비 없이 각 가정의 김장 시기에 맞춰 주3회(화·목·금) 지정날짜에 받아 볼 수 있다.

핵심 재료인 아삭한 익산 절임배추가 3만3천900원에 구매 가능하며 마늘, 생강 견고추, 대파, 양파 등 김장에 필요한 농산물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알뜰하고 간편하게 김장을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절임배추는 아삭하고 깨끗한 익산 배추를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해 절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대표 김장 간식인 달달한 꿀고구마 상품도 5kg에 1만2,000원에 판매해 김장 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익산몰에서 재료구매 시 구매액의 5%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송비가 익산시일 경우 일부 품목에 한해 오전 8시까지 결제 완료 시 당일·무료배송 서비스까지 챙길 수 있다.

더불어 익산몰은 직접 김장 담그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김장체험한마당 사전예약을 오는 28일까지 신청받는다.

현장 체험, 드라이브스루 택배 등 3가지 방식을 선택해 30kg 상당(절임배추 20kg, 양념 10kg)의 제품을 16만원에 예약할 수 있다.

다음달 28일 서동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리는 김장체험한마당은 체험과 나눔행사, 문화공연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에 부는 혁신의 바람... 정책 반올림 2기 '킵오프'

시정혁신모임 본격 활동 시작

군산시는 MZ세대세대 중심의 운영 중인 시정혁신모임 정책 반올림 2기 가 지난 21일 킵오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책 반올림은 군산시 임용 5년 이하의 8~9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 혁신 모임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일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직된 행정 조직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 '정책 반올림'은 '배려하는 인수인계', '즐거움 출·퇴근', '연가사용 장려문화'의 주제로 세 차례의 전청원 대상 설문조사 및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펼쳤고, 정책 워크숍 및 매 주 정기모임을 통해 3개의 팀이 △군



산시간여행축제 청년 서포터즈(청년 및 축제 활성화 정책), △군산 NEW아 이조아카데미(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군산 예술 그리고 청첩장(신혼부부 지원 정책) 등 군산민의 시책을 발굴했다.

이 중 '시간여행축제 청년 서포터즈'는 시책으로 정식 채택돼 오는 11월 '시간여행축제 청년 서포터즈' 모임에 돌입하며 2023년 1분기 동안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해 청년의 젊고 신선한 생각과 문화가 시간여행축제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여권 민원 야간창구 운영 '큰 호응'

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여권 민원 야간창구 운영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연평균 2만여건에 달하던 여권 발급은 코로나9 여파로 2020~2021년에는 연간 1,800여 건으로 감소했다가,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여권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권 발급 및 수령을 위해 목요일 야간에 시정을

찾는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시는 현재 매주 목요일 저녁 시간을 연장해 여권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평일 근무시간에 여권을 만들거나 찾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시청 1층 열린민원관에서 2시까지 여권 야간창구를 개방한다.

또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규격에 맞는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도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온라인 여권 신청은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와 미성년자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했다하더라도 여권 수령은 직접(대리수령 불가) 방문해야 한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그리고 여권발급 신청서(열린민원과 비치)를 작성해 제출하고, 만약 사용하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문화재 태극기' 기획전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문화재 태극기 기획전'을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역사의 순간마다 함께한 태극기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전시 자료는 △고종이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데니(Denny)에게 하사한 데니 태극기, △전남 구례 일대에서 활약한 의병장 고광순이 사용한 불원복(不還復) 태극기, △1908년 동덕여자의숙 태극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1941년 중국에서 미국으

로 가는 매우사 신부에게 준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태극기 사진 20여점으로 구성됐다.

또 전시관을 돌아보며 체험하는 활동지와 북마크, 미로 체험, 태극기 만들기, 태극기 전달하기, 만세운동 전파하기 등 태극기를 주제로한 체험 교육 공간도 마련됐다.

박물관관리과 관계자는 "보다 많은 관람객이 전시를 통해 태극기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고 태극기의 변천사를 이해하고, 태극기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나라사랑 정신도 함께 느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공공시설 자원 공유누리 서비스 '확대'

익산시는 공공부문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의 증진을 통해 '공유누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공공자원 가운데 신규로 개방이 가능한 자원을 발굴해 시민들에게 현황을 공개하고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서별로 관리하는 회의실, 체육시설과 문화·공연·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자원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공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강좌와 주요 관광지, 공연·주요행사, 공공화장실 위치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과 관광객 이용 편의 증진에 힘쓴다.

앞서 시는 '공유누리 시스템'(<https://eshare.gokar.com/>)에 425개 공공자원을 등록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채납처분 중지

군산시는 25일 압류 실익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채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채납세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전 절차로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 및 차량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납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채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채납세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사결과 한 가지치 없는 사실상 멸실 차량 250여대 및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 7건에 대해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채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하고 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채납처분 중지처분 후 해당 차량 및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